

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에 이용경 KT 사장 선임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신임 회장에 이용경 KT 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임시 총회를 거쳐 신임 회장에 이용경 KT 사장, 부회장에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그리고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감사, 이승모 전 정보통신부 공무원교육원장은 상근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됐고, 임원진으로는 KTF·데이콤·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파워콤·드림라인·지앤지네트웍스·KT파워텔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 마케팅 부사장 영입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기술업체인 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가 마케팅 수석 부사장을 영입했다. 그레고리 조젠슨 수석 부사장은 앞으로 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의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기획과 월드와이드 브랜딩 전략 수행을 총괄할 예정이다. 조젠슨 수석부사장은 오라클·IBM·코카콜라 등 다국적 기업에서 22년간 근무해왔으며, 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에 합류하기 전에는 IBM에서 솔루션&전략사업부의 수석컨설턴트로서 IBM이 비즈니스 통합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전략적 포지셔닝 캠페인을 추진했다. 문경일 한국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 사장은 "이번 조젠슨 마케팅 수석부사장의 영입으로 네트워크어쏘시에이츠의 마케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텍홀딩스 조창환 신임 사장 임명



사이버텍홀딩스가 김상배 사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조창환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조창환 사장은 데이콤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사이버텍홀딩스에 합류, 국내 영업부문을 총괄해 왔다. 조 신임사장은 취임 소감에서 "무엇보다 수익률 개선에 주력, 내년에는 다시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매크로미디어 신임 지사장에 이경봉씨 영입



한국매크로미디어가 신임 지사장으로 이경봉 전 안철수연구소 부사장을 영입했다.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이경봉 지사장은 지난 86년 한국IBM에 입사해 15년간 신규시장 개척분야 영업담당, 경영동반자 사업본부 영업 및 전략기획담당을 거쳐 아시아태평양지역 솔루션 디벨로퍼 얼라이언스 매니저와 스토리지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이 지사장은 2000년 안철수연구소 부사장(COO)으로 영입돼 안연구소의 코스닥 상장에 공헌했고 다음솔루션 및 액션온라인의 대표이사를 거쳐 이번에 한국매크로미디어의 지사장으로 부임했다.

로토토 인터넷사업부 대표이사에 김정태씨 선임



로토토는 최근 이사회를 거쳐 인터넷사업부 대표이사에 전 한글과컴퓨터 및 스포츠 토토 부사장을 지낸 김정태 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사업부 대표이사 선임으로 로토토는 김정태, 문재식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한편, 로토토의 공시책임자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로는 손운수 이사가 선임됐다.

MiB테크놀로지 신임 부회장에 윤한상씨 영입

통합 성능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인 MiB테크놀로지가 윤한상 전 한국오라클 부사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이번 윤 신임 부회장의 영입은 MiB테크놀로지가 글로벌 기업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MiB의 강원일 사장은 "오랜 기간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재직하면서 경영 제반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윤한상 전 한국오라클 부사장의 영입으로 자사가 규모나 내실 측면에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한상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한국산업은행과 삼성물산, 삼성데이터시스템(현 삼성SDS) 등을 거치면서 국제통상업무와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한국오라클에는 지난 94년부터 부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신임사장에 안용우씨

정보보호솔루션 업체인 넷시큐어테크놀로지가 신임사장에 안용우 전 연구소 본부장을 선임했다. 넷시큐어테크놀로지는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 신근영 전임 사장의 사표를 정식 수리하고 안용우 연구소 본부장을 신임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근영 전임 사장은 넷시큐어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인 소프트랜드가 지난달 코스닥에 신규등록됨에 따라 소프트랜드의 사장을 맡기 위해 사임했다. 안 신임 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데이콤과 하나로통신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8월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입사해 경영기획본부장과 연구소 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라비티 임건수 대표 체제 출범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의 개발사 그라비티는 정병곤 전 사장의 후임으로 임건수 전 라그나로크 총괄 실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의 이번 인사는 실무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신임 임건수 대표이사는 라그나로크의 MMORPG R2V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총괄해왔다. 임건수 신임 대표는 "그라비티의 대표직을 맡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실무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 개발의 질과 속도를 높이고, 약속을 지키는 그라비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김학규 개발이사의 후임에는 '라스더 원더러', '악튜러스', '라그나로크' 등의 기획을 담당해온 신현우 이사를 선임, 개발을 전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표준협회

KT

한국무형정보통신

한전KDN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특수거래보호과장 이성구

연구개발실장 김인수, 연구정보실장 김영현, 경영기획실장 오혁, 연구계약팀장 최치호, 특허담당 민경남, 구매관리팀장 박종식

산업표준연구원장 정석진

정보시스템본부장 윤영상, 정보시스템본부 경영정보개발팀장 김선주, 정보시스템본부 마케팅정보팀장 민성오, 정보시스템본부 고객정보개발팀장 김재호, 정보시스템본부 요금정보개발팀장 장창기, 정보시스템본부 고객/시설 정보통합팀장 이두범, 정보시스템본부 데이터표준팀장 이길영, 정보시스템본부 부산전산국장 김현철

전우 이수웅

기획조정실장 김석기, 정보통신영업팀장 신광균, 전송망사업팀장 박강숙, 정보화영업팀장 송한일, 인터넷사업팀장 유명준, 전력입찰시스템TF팀장 차형식, 시스템영업부장 김학성, 영업운영부장 남창희, 전산운영부장 배재중, 판매SI TF팀장 곽영훈, 통신연구부장 김동수

마케팅 본부장 조우상, 공공통신 사업본부장 박찬균, 공공제조 사업본부장 신장철